

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호화까지는 이해하셨다니 기호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^^ 그리고 기본서 해설(p.152)은 모든 경우를 다 정리한 것이지만 지금의 해설은 정답을 찾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어 설명하겠습니다. (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^^.)

[논리 T/F 심화문제 3번]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**갑, 을, 병, 정 中 1명만 범인** 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^^ (이 해설의 읽는 순서는 1st, 2nd...로 읽어나갑니다. 그리고 해설은 보시기 편하게 **파란색**을 사용하겠습니다.)

갑1:	을 all T	5th. "2nd"에서 을2가 [F]였으므로, 갑1은 [F]가 되네요.
갑2:	갑, 범인 k	6th. "4th"에 의해서 갑2는 [T]가 됩니다. 그래야 "4th"를 위배하지 않고 만족시키네요.
을1:	모두, 범인 k	8th. "7th"에 의해서 을1 "모두, 범인k"은 [T]였습니다. 게다가 "3rd"를 위배하지 않고 만족시키네요. 이상으로 풀이가 끝났어요.
을2:	~갑^~을	2nd. 갑은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졌고, 을은 범인(I의 경우)이라고 가정했으므로, [T^F]로 을2는 [F]가 됩니다.
병1: T	갑, 범인k→모두, 범인k	7th. "6th"에 의해서 전건인 "갑, 범인k"가 [T]임을 알았고 병1의 진술은 [T]이어야 하므로 후건인 "모두, 범인k"는 [T]이어야 합니다. {즉 [T]인 명제인 "갑, 범인k[T]→모두, 범인k[?]"에서 전건인 "갑, 범인k"가 이미 [T]이므로 후건인 "모두, 범인k"은 반드시 [T]이어야 겠죠.}
병2: T	~을→~갑	1st. 대우명제인 "갑→을"도 참이겠죠? 여기서도 갑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[T→T]인 참이라면, 즉 갑이 범인인 것도 참 그리고 을이 범인인 것도 참이 되므로, 범인이 벌써 2명이 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조건(범인 1명)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. 따라서 [F→?]인 참이어야 합니다. 즉 갑은 범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. 그렇다면 그 다음의 경우는 3가지가 나옵니다. I. 을이 범인/ II. 병이 범인 /III. 정이 범인인 경우로요. 여기서 I의 경우 즉 을이 범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을이 범인이라고 나오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풀이가 나옵니다^^
정1:	⊕ F 갑 all F	4th. 정2가 [F]이므로 정1도 [F]이겠지요? 그렇다면 "갑의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인 것만은 아니다"가 되겠네요. (갑의 두 진술 중 적어도 참이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.)
정2:	⊕ F 을 all T	3rd. "2nd"에 의해서 을2가 [F]이고 이에 을의 두 진술이 모두 참일 수는 없으므로, 정의 두 진술은 모두 [F]가 되겠네요. 그렇다면 "을의 두 진술이 모두 참인 것만은 아니다."가 되겠네요. (을의 두 진술 중 적어도 거짓이 하나 이상이면 됩니다.)

지금까지 우리는 "1st"에서 시작했던 **I. 을이 범인**인 경우를 살펴본 것이고, 이 경우가 모든 조건을 위배하지 않고 만족시켰으므로 결론은 바로!! "을이 범인"이라는 정답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^^

이상입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(박수~~)